

## 최근 대형사고와 관련한 안전의식

이 코너는 이번달부터 신설한 코너로, [www.safety.or.kr](http://www.safety.or.kr)에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독자의 목소리를 담아 게시판에 올려놓은 글 중 좋은 내용을 소개합니다.

### 안전교육의 필요와 중요성

박동근(ID : bestsafety)

초등학교부터 정규과목에 안전교육이 편성되어야 한다.

무너지고, 깨지고, 터지고, 불타는 수많은 사건! 잇을만 하면 또 발생하는 대형사고. 원인은 한결 같이 안전불감증, 그리고 인재.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할 것이고, 사후 약방문으로 대처할 것인가?

안전청 신설이나 재난관리국 운영하는 정부관료들의 신뢰도도 시간이 가면 또 잊어버리고 묻어 야 되는 건지.

회오리치는 난리로 인해 말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떠들지만 정작 조치는 미흡하고 시대에 뒤쳐지고 있는 현실!

안전제일은 실천이 아니고, 구호로 끝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늦었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해당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교육기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정규과목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3살 버릇이 여든살까지 간다는 우리 선인의 가르침을 외국에서는 벌써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초

기 안전교육을 정착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교통안전과 화재예방교육 그리고 중량물 취급, 위험물, 가스취급 등 가정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교육을 학교나 계몽방송을 통해 반복·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의식 변화를 해야 합니다.

셋째,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운전 교습과정을 이수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필수품이고, 이용 증가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단기간의 운전교습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로 나서는 불안함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사고와 재난을 관리하는 관청이 필요합니다. '통계 → 조사 → 개선 → 보고'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화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인재로 인한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나누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그야말로 유능한 사공과 잘 나가는 배가 필요할 때입니다.

## 안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때

전영석(ID : jysuk2115)

시스템 안전에 접근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전문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산업이 날로 다양화되고, 전문화, 첨단화되면서 사람이 담당하는 일들을 기계(컴퓨터 등)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역할을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을 우려하는 필자에게 뭐 골치 아프게 신경을 쓰느냐는 사람도 있다. 주 시스템이 다운되면 자동적으로 예비시스템이 가동되는 자동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히려 “하늘 무너질까봐 무서워 어떻게 걸어다니냐?” 고 핀잔을 받기도 한다.

설비가 자동화되고 첨단화되면 될수록 사람의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한 것이다. 즉, 설비가 자동화 된다면, 당연 해당 라인에서의 직원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자동화된 시스템이 정지되었을 때 생산 활동을 중지하느냐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계속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경영주 입장 이라면 가능한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생산라인을 가동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과 같이 교통수단일 경우 최대한 전동차운행을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킨다. 그러나 안전 측면에서는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평소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적은 인원으로 비상 전동열차를 운행할 때 착오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첨단 자동화에 대해 사전에 비상상태를 대비한 메뉴얼(수동)취급 · 훈련이 이루어져 있어

야한다.

산업이 첨단화되고 자동화될수록 전문가가 필요하다. 설비를 유지 · 보수하고 관리 · 운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 부문별 전문가들이 간과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오류나 문제를 찾아보 완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이다. 각 기능간의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설비 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인적요인에 이르기까지 안전 관리자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특히 시스템산업의 대표격인 지하철과 같은 철도산업에서는 각 부문들이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안전에서 접근해 나가는 안전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유능한 안전전문가를 양성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때 대구지하철참사와 같은 대형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처럼 안전부서의 중요성과 안전관리자를 선호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이루어져 나가야 비로소 안전제일주의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사고는 줄어들 것이다. 

